

서해교전 전몰장병 2주기 추모 메시지

서해교전 2주년을 맞아 목숨 바쳐 우리의 바다를 지켜낸 해군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천금보다 귀한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군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고(故)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애국적 헌신은 우리 모두가 우러러 보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 합니다.

장병들이 사수했던 서해바다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계기로 긴장이 완화되고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포를 겨누었던 남북의 함정들이 서로 교신하며 우발적인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 일어난 김선일 씨 살해 만행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장병 여러분의 어깨 위에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첫번째 임무입니다. 더욱 철저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무적해군의 전통을 이어받은 해군장병 여러분은 우리의 영해를 물샷틈없이 지켜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해군과 해병대 장병 여러분의 무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